

中世哲學과 基督教(1)

金允經

一, 緒 論

中世哲學이라 하는 것은 嚴密히 말하면 『스콜라』 Schola 哲學을 이르는 것이지만 『스콜라』哲學은 敎父 Patres ecchlesiae=Courch father)들이 그리스도 敎의 敎義를 組織한 敎父哲學에서 發展된것이외다. 敎父란것은 初代 基督教會의 信仰 指導者를 尊稱하는 이름이외다. 그들은 第二世에 漸漸 勃興하게된 그리스도敎의 組織事業에 着手한것입니다. 그러함으로 中世哲學이라 하면 敎父哲學에서부터 말하게 됩니다. 오늘의 基督教理를 徹底히 알려면 中世哲學의 學說을 살피지 아니하면 아니됩니다. 이에 筆者는 이것을 關係密接한 中世哲學의 重要한 學說을 좀 紹介하여합니다.

本文을 抄함에 當하여 筆者가 東京에서 學窓生活하던 三年間 趣味있게 聽講하던 哲學史講義의 筆記를 根據로하고 다른 數種을 參考하였음으로 부터 어 말하여 둡니다.

二, 니케아會議以前의 敎父哲學

그리스도敎는 우리의 잘 알고 잇는 바대로 猶大敎에서 일어난바 그 처음에는 조금도 學術이나 哲學上의 思想을 석거가지지 아니하였음입니다. 根本 觀念은 造物主되는 唯一의 神을 아버지라 보고 사람은 그 子女인 兄弟로서 神 卽 하나님아버지에게 맞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神을 아버지처럼 恭敬하여 섬기고 서로 兄弟가티 사랑하여야 할 터인데 罪惡의 마음을 일으키어 하나님을 이저 버리게 되었음으로 사람은 맛당이 그 罪惡을 뒤웃치고 하나님께 돌아 가야 할 것이라 함이 그리스도의 傳하신 敎訓의 要旨외다. 最初 傳道할새에는 그리스도의 敎訓을 直接들은 弟子들이 親히 들은바 대로 傳하는터이때 別로히 複雜多端한 敎理를 組織할 必要가 없었습니다. 그리하나 漸次四方에 傳布됨에 잘라서 여러 가지 異敎徒와 接觸하게 됨으로 漸漸 解釋을 要求하는 여러 가지 問題와 逢着하게 되었으면 또 이 新宗教를잇는이의 맞들고 나아갈만한 宗旨가 무엇인가를 밝히 定할 必要

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敎理組織이 일어나게 된 所以이다. 이것이 또 한 敎父哲學이 일어나게 된 動機이다. 다른 思想과 接觸될 때에 解釋을 要求하는 種種의 問題 中에는 헬라(希臘)思想과의 調和 或은 神과 그리스도와 사람의 關係를 解釋하려함의 重要的 問題였읍니다. 이 敎理組織의 事業에 對하여는 이미 使徒바울이 시작한 것이나 바울은 主로 猶大敎의 思想으로 그리스도敎의 새 敎理를 形成하려고 하였읍니다. 卽 人類의 始祖 아담이 罪惡을 犯함으로 因하여 人類는 罪惡을 犯한 者가 되었는데 예수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어서 十字架의 苦痛을 맞고 人類의 罪를 救贖하여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仲介者가 되어 人類를 救援함이라 함이 바울의 神學의 要旨와다. 또 요한 福音記者도 特殊한 趣旨를 가진 神學組織의 發芽를보입니다. 그 根本思想은 이미 헬라哲學에 나타났고 또 알렉산드리아의 엘론(Philon)哲學에서 主要한것이 된 『포고쓰』(Logos)를 가지고 基督과 同一體되게하여 神의 아들이라 본 것입니다. 그 뒤로 第二世紀以來의 敎父들의 敎理組織은 그리스도에 直接接觸한 使徒들의 傳한 敎理를 土臺로하고 헬라思想으로 解釋하여 敎理를 組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것이 그리스도敎의 正統敎理며 어느 것이 非正統인가를 區別함에는 使徒들의 傳한말을 標準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하나 그 解釋에 對하여는 처음부터 一定한것이 아니고 여러 學說이 紛紛하게 됨으로 異端과 正統을 決定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大體의 敎理는 니케아(Nicea)會議(二三五年)안에 成立되게된것입니다. 그리 한여 敎父哲學은 이 會議를 境界로하여 니케아會議 以前時代와 그 以後時代로 가르어 보게 됩니다. 니케아會議 以前時代에는 敎義의 根據는 大畧成立되었다 할찌라도 敎會안에는 種種의 傾向이 나타나게 되어 異端과 正統의 區別이 確定되지 못하였으나 니케아會議(三二五年)以後로 에베소會議(四三一年과四四九年)와 콘스탄티노플會議(五五一)年其他의 여러 會議로 異端과 正統을 判斷하여 決定하게 되었습니다.

니케아會議以前의 그리스도敎의 敎理解釋에는 大盖 세傾向으로 난우게됩니다. 卽 護敎家와 노시쓰派와 알렉산드리아의 問答派 敎會學校가 그것의외다.

三, 護敎家(Apologists)

護敎家란 것은 그리스도敎에서 나아온 思想이라면서 實狀은 그리스도敎理를 썬나『노시쓰』派에 對하여 또는 猶大敎와 其他의 異敎徒에 對하여 그리스도敎旨를 維持하며 또 로마의 有司가 그리스도敎徒를 迫害함에 대하여 그리스도敎를 辯護하기에 힘쓴 이들을 이룸이외다. 그 主要한 代表者로서는 이리스티데쓰(Aristeides, a. 150)와 殉敎者 유쓰티누쓰(Justinus, a. 100-a.

150)와 其他數人이 있습니다. 그 中 注目할만한것은 유스티누스의 學說이외 다 그는 처음에 플레톤이며 스토아들의 哲學을 探究하였으나 滿足을 얻지 못하고 마침내 그리스도敎에서 滿足을 發見한입니다. 그는 헬라의 『포고쓰』(Logos)의 概念을 취하여서 『포고쓰』는 世界 中에 內在하여 世界를 支配하는 神的原理인데 그리스도 『포고쓰』의 사람된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포고쓰』는 헬라哲學에 이미 나타난바나 아직 完全히 表示되지 못한 것이외다. 『포고쓰』가 肉體로된 그리스도로 因하여 眞理는 비릇오 完全히 發現되는것이외다. 헬라哲學은 完全한 眞理는아니고 그리스도敎에 對한 入口에 不過하는 것이외다. 헬라哲學이 不完全은 하나 오히려 그리스도敎와 一致點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다 多少『포고쓰』의 啓示를 받는故로 예적에 있어 서는 헬라의 哲學者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갓튼 이들이 다 한편으로는 直接『포고쓰』의 啓示를받고 한편으로는 모세 其他의 猶太의 豫言者들이 敎를 얏으로 因하여 眞理를 얻은 者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傳한 『포고쓰』는 다 完全하지 못하고 그 完全히 나타난 것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포고쓰』로 發現하고 또 『포고쓰』로 因하여 世界를 지은 神은 世界를 超越한 者며 神에서 난 智慧는 곳 聖靈이라 하였습니다. 유스티누스는 混沌한것을두어 本來부터 存在한것이라하고 神은 이것으로 世界를 創造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二元論이외다. 유스티누스는 헬라思想으로 그리스도敎 思想에 混和하려한것이외다.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도 護敎家 中의 한사람이지만 그는 哲學的 知識으로 宗教를 說明하려는 것을 反對하였습니다. 그는 熱烈한 信仰을 가지고 헬라哲學을 크게 攻擊하였습니다. 特히『노시쓰』派를 反對한 者올씨다. 哲學을 排斥하고 知識을 排斥한 結果로 생긴 그의 有名한 말에 『하나님의 아들은 磔刑을 맞을스것이다. 이는 부스러운 일인 故로 부스럽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普通 그의 말이라고 傳하는 『不合理的故로 나는 밋는다』(Credo quia absurdum est.)함은 實狀 그의 말이 아니외다. 그는 우리의 自然의 意志及 思想은 다腐敗하였다고 哲學은異端의 어머니라 하였지 마는 그의 思想은 헬라哲學에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卽 그는 物質과 精神을 쪼나지 못할스것이라고 보는『스토아』學派의 思想을 取하여 모든 잇는 것은 다 物體다. 神도 靈魂도 다 物體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 『스토아』學派와 가티 肉情에 屬한것과 道德을 對立시키어 禁慾主義의 道德을 主張하였습니다.

四, 노시쓰派(Gnostics)

元來『노시쓰』(Gnosis)라는 헬라 말은『知識』이라는 뜻이외다. 卽 神의 認識을 『노시쓰』라 이르게 된 것입니다. 護敎家들이 知識을 全然 排斥하고 나아

가는 것은 非合理的 곳에 信仰의 本質을 세우려 한 것임으로 信仰 (卽pistis)을 單只 信仰에 그치게 아니하고 다시 나아가야 『노시쓰』되게 하려는 것이 『노시쓰』올씨다. 이 概念을 中心으로한 宗教思想이 이미 그리스도敎 以前에 잇었으나 그 性質이 明白하지 못하였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敎와 混合하여서 이른바 『노시쓰』派란 것이 생긴것이외다. 이는 그리스도敎 思想 中에 猶大敎 或은 다른 異敎徒的 要素를 석거 가지고 잇는 때문에 敎父哲學者中에 異端者로 攻駁받게 된 것입니다. 그 立場은 『노시쓰』의 概念에 두고 그리스도敎를 理解하려고하여서 그리스도敎를 哲學化하려고하였으나 만흔 點에서 그리스도敎와 相反되는 結果에 이르게 된 것이외다. 가령 그 重要的 實例를 들어보면 精神과 物質 或은 善과 惡의 二元을 세우어 異敎的인, 多神的인 傾向을 띄고 잇음이다. 最高의 神外에 世界 創造者로서 『데미우르고쓰』(Demiourgos)를 세우어 最高神의 보냄을 맞은 그리스도가 이 『데미르고쓰』를 이름이라함을 믿는 것이외다. 이 『노시쓰』派에도 또 여러 宗派가 잇어서 그 理論이 不一합니다. 第一世紀에 시작하여 第二世紀가 가장 盛行하게 되었고 第二世紀半頃으로부터 護敎家의 正面敵이 되어 敎會에서 排斥되게 되었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敎理를 知識으로 組織하려고한 點에서 큰 影響을 미치게 하여 그 結果로 信仰과 調和하는 『노시쓰』를 求하려는 알렉산드리아의 問答派 學校의 사람들이 出現하게되고 또 나중의 『스콜라』哲學의 先驅도 되게된 것이외다. 그리하여 『노시쓰認識論』(Gnoseologie)이란 것이 생기게 되었음이다.